비정규직 615만명 중 대졸 200만

고졸은 271만명으로 가장 많아… 평균 임금 151만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근로자들도 200만명이 넘는 시대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2.4%)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32.0% 수준이다.

고학력 인력인데도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근로자가 200만5000명이나 됐다. 전체 비정규직 10명 중 3명(32.6%)은 '대졸 이상'이다. 고졸이 271만5000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가 23.3%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276만1000명으로 8000명(0.3%) 증가했고, 여자는 339만5000명으로 13만7000명(4.2%) 늘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50대 이상 여성 고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편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만3000명, 5.9%), 제조업(2만9000명, 5.6%) 등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4만5000명, -3.8%)에서는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종사자(10만4000명, 10.9%), 단순노무종사자(4만8000명, 2.6%), 서비스·판매종사자(2만9000명, 2.0%), 관리자·전문가(7000명, 0.6%) 등에서 늘었고 사무종사자(-4만5000명, -6.5%)는 감소했다.

현재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5개월이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6.7시간으로 1년 전보다 0.7시간 감소했다.

최근 3개월(1~3월) 간 월평균 임금은 151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4000원(3.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속기간, 근로시간, 교육수준, 산업 및 직업 등 특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한 후 분석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0.6%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시원한 오피스룩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 앞 스테이지에서 열린 '서머(Summer) 오피스룩 페스티벌'에서 콜비즈 오피스룩을 소개하며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신보 호남본부-3개기관 금융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한기정, 이하 신보)는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대표 송용민, 이하 하나은행), 광주전남창업보육협회(회장 윤홍상),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구)과 '성장성 우수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6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협약보증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전남지역 성장성 유망 창업기업과 경제고용진흥원의 정책자금 배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창업보육협회가 추천한 중소기업과 경제고용진흥원이 추천하는 구조고도화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이번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을 0.2%p 차감하며, 보증비율 또한 최대 3년간 90% 이상 우대 적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역시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대출금리를 최대 1.0%p 우대하고, 중소기업이 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 중 3년간 0.6%p를 지원한다.

/정영수기자

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가 양극화' 지속

수도권 0.04% ↑ 지방 0.03% ↓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양극화'가 두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3일 기준 전주 대비 수도권 0.04% 상승, 지방 0.03% 하락하면서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0.06%, 인천과 경기는 모두 0.03%씩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단지와 투자성이 있는 신규아파트 등에 매매수요가 이어진 반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소폭 하락했다.

서울 강북권(0.03%)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의 매매가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강남권(0.08%)은 영등포구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강남구와 구로구, 서초구 등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요 자치구별 매매가는 강남구(0.16%), 서초구(0.10%), 구로구(0.10%), 양천구(0.08%), 서대문구(0.08%), 금천구(0.08%), 관악구(0.07%) 순으로 올랐다.

지방에서는 충북이 하락세로 전환했고 대구와 경북, 충남의 하락폭은 확대됐다. 하지만 부산에서 매매가 상승폭이 커진데다 울산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합했다.

시도별 매매가는 부산(0.06%), 강원(0.03%)은 상승하고 세종과 제주는 보합했다. 경북(-0.16%), 대구(-0.12%), 충북(-0.11%), 충남(-0.06%)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의 오름세(0.04%)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0.08% 상승, 지방은 보합했다.

/안진수 기자

친숙한 과자의 깜짝 변신

식품업계 스테디셀러 초코파이 등 새로운 맛 출시

식품업계의 스테디셀러가 최근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이며 식품업계 성장을 이끌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 정', '스윙칩',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팔도 '비빔면' 등의 제품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3월 '초코파이 정 바나나'를 출시했다. 오리온이 초코파이의 자매제품을 내놓은 것은 1974년 초코파이를 출시한 지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초코파이 정 바나나'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초코파이는 4월 한달 간 사상 최대 월 매출인 151억원을 달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7% 성장했다.

초코파이 바나나는 최근 식품업계에 일고 있는 '바나나 열풍'을 선도하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리온의 또다른 스테디셀러 '스윙칩' 역시 간장치킨맛이 인기를 끌며 제과시장에 '오리 맛 스낵' 트렌드를 불러왔다. 간장치킨맛의 효과로 4월 스윙칩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안진수 기자

조경수조합장협의회, 묘목사업 선진지 견학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방문

도내 지역농협 14개 조합으로 구성된 조경수조합장협의회가 조경수 묘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6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 최대 묘목시장이 조성된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옥천군청 담당계장으로부터 옥천군의 묘목사업 방향과 묘목유통센터의 사업 운영 방법 및 옥천군 묘목 유통실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옥천 묘목유통센터는 2005년에 준공돼 현재는 묘목축제까지 개최할 정도로 성장한 곳"이라고 했다.

도내 지역농협 14개 조합으로 구성된 조경수조합장협의회의 옥천군 방문

그러면서 "농협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경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농협은 실무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북농협 조경수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5월 전북소비자심리지수 2%p하락

지난 달 한차례 훈풍이 불었던 전북지역 소비심리가 다시 뒷걸음질이다.

전국적으로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설이 나오면서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매우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5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8로 전월(100)보다 2p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도 지난달 크게 상승했던 향후경기판단이 85에서 79로크게 떨어졌고 지난달 상승세를 보인 생활형편전망(98→98)이나 현재경기판단(71→70)도 보합이나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특히 취업기회전망(84→74) 및 임금수준전망(115→110) CSI는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주택가격전망(100→104)은 상승해 도민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대변하고 있다.

/정영수기자

한국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전국 청사관리 워크숍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새만금 방조제 신시33센터에서 『2016년 농어촌공사 전국 청사관리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의 청사관리와 방호, 차량운전, 환경미화원에 대한 분야별 맞춤교육 실시로 안전관리 등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실시된 워크숍에는 이상무 사장과 신현국 부사장, 노동조합 김동욱 수석부위원장 등 경영진과 외근 종사직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전주완주지부, 농촌인력위해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정형모)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센터장 장우철)는 26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농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구직을 원하는 노인들의 인력 풀(pool)을 농협에 제공하고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는 노인들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완주=이중복기자